

사설

민족상생의 시대로

남북한 정상의 감격적인 만남에 온 겨레가 열광해 휩싸여 있다. 이번의 만남으로 어디서부터 손을 써 나가야 할지 막막했던 통일 문제가 이제는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로 눈앞에 성큼 다가온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정상회담의 성과를 차분하게 현실적인 조건에 맞추어 풀어나가는 일이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그 동안 분단상황 아래 체제 유지를 위해 서로를 비하하고 적대시하던 모든 필요악적인 요소들을 하나 하나 제거해 가는 일일 것이다. 이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한에 대한 비방 선전을 중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하고, 이쪽에서도 국가보안법의 손질을 준비하는 등 그런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서로를 적대시하던 과거를 청산해나가는 우리의 길목에 바로 6.25가 놓여져 있다.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하는 6.25 노래의 가사에 드러나듯 그만큼 6.25는 적대감의 원천이요, 남북한 민족의 감정을 깊은 상처의 골을 새긴 아픈 과거이다. 이 아픈 과거를 되새기는 날에 통일의 앞날에 비추어 이 상처의 자국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과거의 아픈 상처를 슬그머니 덮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시를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보다 높은 차원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극단적인 대결 시대는 이제 끝이 났다. 북한이 아직 마지막 사회주의 국가로 남아 있다. 하지만 세계적 흐름을 거스름만큼 힘이 있는 위험한 존재도 아니다. 민족의 밝은 앞날을 향한 전향적인 자세 아래서 보는 6.25는 이미 과거의 유물이 되어버린 이념의 대결이 빛은 민족사의 참혹한 비극일 뿐이다. 불교의 눈으로 본다면 6.25는 분별상에 대한 집착이 빛은 참혹한 역사에 대한 참회의 날이어야 하며, 민족의 하나됨을 통해 그 죄과를 씻기로 다짐하는 날이어야 한다. 수많은 스러져간 호국 영령들의 넋도 그러한 화합과 하나됨의 세계 속에서 진정한 해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6.25를 기해 불교계에서 계획하고 있는 많은 기념행사는 바로 민족의 하나됨을 통해 분별상에서 나온 과거의 죄업을 해탈케 하는 불어법문의 법회이어야 하며, 그를 통해 그 참회의 와중에 산화한 맑은 영령들을 안전한 해탈에 들게 하는 법회이어야 한다.

지리산담 건설 안된다

정부는 낙동강의 수질이 나빠지면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상수원을 찾고있던 중 대구 위천공단지건설계획이 발표됨으로써 낙동강수질개선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결국 대체상수원으로 함양군 문정담을 건설한다는 방침을 1997년 발표했다. 건설 예정지는 구례와 함양, 신창을 잇는 지리산 북쪽 경사면의 가장 아름다운 계곡이 있는 곳이다. 만약 담이 건설되면 유명한 중산리계곡과 달궁계곡, 백사골, 백무등계곡은 지형이 달라지며, 벽송사, 서암, 금대암, 영선사 등의 진입도로가 수몰되어 고립될 것이다. 사찰의 목조건축물과 벽송사의 목장승, 실상사의 철불을 비롯한 부도, 탑 등 모두 15개 사찰의 피해가 예상된다. 나아가 생태계가 파괴되고, 신도들과 탐방객들의 사찰 접근이 훨씬 어렵게 될 것이다. 더욱이 이 담이 지어지면 실상사 앞 약 200m까지 물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리산은 이미 거대한 역사적 두께가 쌓인 곳이며 산 그 자체가 역사유적이자 문화유적이다. 또한 남한에서 가장 풍부한 생물종이 보존되어 있는 곳이다. 담이 들어오면 엄청난 물이 채워져서 인근의 기온을 낮추어 생태계를 파괴하게 될 것이며, 안개가 많

이 발생하여 곡식과 식물생장에 큰 피해를 준다. 뿐만 아니라 공사를 위해서는 새롭게 이설도로공사를 해야 하는데, 결국 울창한 숲이 대규모로 잘려나가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결국 당장의 식수문제 해결을 위해 지리산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노후된 상수관리를 교체해도 동강담을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노후상수관의 누수율은 16% 정도가 되고 이 문제만 해결해도 연간 6억톤 이상의 용수가 절약된다. 그리고 중수도시설을 통해 물을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물절약 범국민운동을 전개하며, 수자원관리 기구를 일원화하면 실질적으로 낙동강의 수질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초기부터 확고하게 대응해야 더욱 문제가 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교구본사 사찰주지회의에서도 이미 반대 입장을 천명했고, 환경단체의 모임인 한국환경사회단체회의에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리산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불자들의 단합된 힘으로 지켜야 한다. 지금과 같이 국립공원이나 산림이 파괴되면 이는 곧 생태환경문제 뿐 아니라 불교의 수행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게놈 프로젝트와 불교 생명관

"생태계 질서 대변환 예고"



정호영 (충북대 철학과 교수)

전통적인 서구의 철학이 그러하듯이 전통과학의 문제는 사물을 분석적으로 바라본다는 점이다. 지구를 이해하기 위하여 지구를 여러 가지 요소로 분해하고 이것들끼리 다시 작은 단위로 조개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최소한의 단위를 찾는다. 그리고 이 최소한의 단위를 자립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결국 지구는 스스로 존재하는 개별적인 것들의 집합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라고 이해한다. 지구를 독립적인 여러 부품들이 결합되어 있는 일종의 거대한 기계로 본 것이다. 그러나 지구는 인체와 마찬가지로 여러 부분들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은 자립적인 것이 아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지구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요동치는 유기체이며, 부분들은 상호간에 순환적 인과성(circular causality)을 갖는다. 자전거 타기를 예로 들어보자. 자전거가 왼쪽으로 기울 때 나는 손잡이를 왼쪽으로 돌려 균형을 잡는다. 그러나 그 결과는 내가 왼쪽으로 가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제는 본래의 진행 방향으로 가지 위해 나는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리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손잡이를 계속 오른쪽으로 돌리고 있으면 다시 본래의 진행 방향을 벗어나 오른쪽으로 향하게 된다. 이제 나는 다시 손잡이를 왼쪽으로 돌려야 한다.

새로운 우주가 출현하는 것이며, 한 개체의 죽음은 이제까지의 우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됨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 나아가서는 무기물에 이르는 일체의 존재가 도저히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숭고한 우주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불교의 깊은 통찰과 마주치게 된다.

몇 해전 체세포 복제 기술을 통해 복제양 '돌리'가 태어났을 때 과학의 성과에 대해 경탄해 마지 않았던 것도 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매우 컸다. 이제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 불리는 인간의 유전체 분석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왔음이 속속 보고되고 있다. 게놈 프로젝트 즉 유전자 지도의 완성에는 유전자 조작을 가능케 하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자연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영원 쫓는 인간욕망 '칼날에 묻은 꿀' '달지만 결국 위험'

이러한 현상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깨우쳐야 한다. 나와 자전거는 자전거 타기라는 하나의 운동에서 독립적인 것이 아니다. 나는 자전거에 영향을 미치고 자전거는 나에게 다시 영향을 미친다. 결국 나와 자전거 사이에는 상호인과성이 개재해 있는 것이다. 불교의 연기설 특히 화염의 상즉(相即)·상입(相入)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우주와 거대한 관계의 그물망을 일깨워 준다. (화염경)은 이러한 점을 단적으로 '하나가 곧 일체이고 일체가 곧 하나' (一切一切一切一切)라고 한다. 또한 (화염경)은 우리에게 '한 작은 티끌 가운데 온 우주가 담겨있다' (一微塵中舍十方)를 통찰을 제시한다. 이와 같이 화염사상에서는 어떠한 사물들 사이에도 계층구조가 존재하지 않으며, 중심과 주변이 따로 없다. 세계의 구성요소 사이에 존재론적 단계나 가치론적 차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갓 불자라든 세계의 형성과 유지에 필수 불가결의 요소가 되는 것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말하면 한 개체의 태어남은

어 있을을 알고 있다. 부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초기불교의 <아함경>은 영원을 쫓는 인간 욕망의 위험성을 '칼날에 묻은 꿀'로 표현한다. 꿀의 달콤함에 취하여 칼날이 입안 깊숙이 들어오는 것조차 모르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비유한 말이다. 21세기는 생태중심적(ecocentric) 사고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불교적 사유가 새로운 과학의 세계관, 모든 생명들이 서로 깊이 의존해 있으며 나아가서는 서로가 서로를 새롭게 만들어간다는 새로운 세계관의 형성에 빛을 던져 줄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업과 운의 사상 또한 오래된 속명론, 신화적 세계관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미래를 창조할 책임이 있고 모든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영원한 가르침이다. 갖가지 생명으로 이 세상에 출현하시는 부처님 불자로서의 요소가 되는 것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유전자 조작=인간성 상실"



윤용택 (제주대 철학과 강사)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유전자 조작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유전공학자들은 인간의 모든 것을 유전자의 탓으로 돌리지만, 불교에서는 그 모든 것이 업의 산물이라고 본다. 유전자와 업,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마디로 유전자는 외적인 원인과 결과이지 업은 내적인 의지를 조건으로 한다. 따라서 바람직한 유전자를 가지고 바람직한 인간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인간의 주체성과 자유의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 된다.

물론 유전자 치료법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환자의 질병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불가피한 유전자 치료를 넘어서 우수한 형질을 가진 인간을 만들어 내기 위해 유전자 조작을 한다는 무어라 할 것인가? 실제로 일부 학자들은 유전자 조작기술을 생체 인성 치료의 수단으로까지 응용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수한 형질로 전환하기 위한 유전자 조작은 자칫하면 인간의 자기 노력과 도덕적 책임의 의미를 삭감시킬 위험이 있다. 우수한 형질을 가진 인간으로 만들려는 유전자 조작은 인간을 그 자체의 인격적 가치보다는 도구적·기능적 가치로 보는 것이고, 그것은 곧 인간성 상실의 시작이기도 하다.

유전자를 조작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유전자 치료법은 의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도행위와 일반 차이가 없다. 따라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그리고 육신의 고통을 현실적으로 체험하는 한, 그 고통을 덜기 위해 유전자 조작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일시적인 고통을 잠재울 수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생로병사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으며, 우리의 마음의 병까지 치유한다는 것은 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자기성찰 없이는 생로병사의 문제 궁극적 해결 불가능

인간에 대한 유전자 조작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생명에 대한 신비성이 무너지는 것보다는 인간을 유전자의 종속 변수로 생각함으로써 인간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데 있다. 즉 인간은 자율성을 가진 존재이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사고가 말로 인간이 인간다움을 포기하는 것이

요, 그로 말미암아 차기모순을 범하는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유전자는 외적 원인에 불과하다. 내적인 자기 성찰과 자기 수련없이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완전한 즐거움을 얻겠다는 것은 마치 마약의 힘을 빌어 즐거움을 얻겠다는 것과 같다. 인간은 유전자나 환경 같은 외부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조건을 넘어서 자신의 손으로 스스로를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하는 것도 마약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육체에서의 엄청난 고통을 달래기 위해 마약을 최소한도로 사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지만, 마약의 남용을 통해 즐거움을 얻겠다는 것은 용납되기 어렵듯이,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선천적인 질병이나 장애를 치료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것은 자신의 운명은 스스로의 자기 의지에 의해 결정된다는 불교적 관점과 더 어긋나는 것이다.

하지만 유전자 조작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유전자 조작의 행위보다는 어떤 정신으로 조작성위를 하느냐에 있다. 불교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하고 역할해야 한다. 불교는 생명의 가치를 바로부터가 아닌 스스로가 자신에게 부여해 가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유전자 조작행위 자체가 불교 교리에 어긋나는 점을 말하기에 앞서 어떻게 태어나느냐 보다 태어난 개체가 어떤 업을 쌓느냐를 중요시 여기는 불교의 생명관이 이 문제를 불 필요로 한다. 복제된 인간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복제된 그 자신의 현재와 미래도 업에 의해 그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현재의 육체적·물질적 행복을 보장해주는 기부에 바탕을 둔 종교는 점점 더 실용적이 없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과학기술로도 얼마든지 육체적·물질적 고통은 해결이 가능하고 행복 또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학시대에서 종교의 역할은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즉 우주와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왜·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등과 같은 물음에 답을 제시하는 것이고, 육체가 아닌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어야 한다.

헤초여행개발 (주) HYECHO ADVENTURE TOURS. 대표 ☎ 733-3900 6263-3900. 담당 ☎ (직) 6263-3921-22,28 fax 733-3780 www.hyecho.co.kr E-Mail:hyecho@hyecho.co.kr

佛子世界 絶망메고 대륙의 중앙으로....

Tibet 금단의 대지 티벳 걸망여행 990,000. 평균고도 4,000m 넘니드는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티벳고원... 스승 불교 평화를 지킴은 티벳인들의 삶... 그리고 히말라야! 時空을 넘니드는 티벳으로의 순례를 시작 하십시오. 일 정: 서울-네팔,카트만두-히말라야를 넘어 티벳 평원으로 (자유일정)... 포함사항: 국제선항공료(아시아항공+내선항공:1년 항공권) 중국 및 티벳여행허가서,카트만두 1박. 출발일: 매주 화,목,토 개별출발

스포츠 조선과 함께 하는 중국 실�크로드 문화탐방 여행 8일 ₩1,490,000. 일 정: 서울-서안-돈황-유원-투루판-우루무치-서안-서울. 포함사항: 국제선항공료, 국내선항공료, 비자비용, 공항세, 보험, 특급호텔 안내원, 전용차량, 일정상의 전석. 출발일: 7/14, 23, 8/11, 25. 실�크로드 (Silkroad) 長安에서... 쿤자랍까지 ₩1,690,000. 불교전승지인 실�크로드에서 동,서양을 넘나들던 구림승님들을 생각하며.... 일 정: [21박 22일]서안-난주-기후관-돈황-유원-투루판-키슈가르-탁스쿠르간-쿤자랍(버스)-우루무치(열차)-서안. 포함사항: 항공료, 비자, 숙소(조식포함), 안내원, 도시간의 이동, 보험. 출발일: 7/24, 7/31, 8/7 (10명이상 출발)

JEEP 타고 티벳평원을 횡단 ₩1,990,000. 일 정: 카트만두-라사-장제-시가체-시가-장무-카트만두(11박 12일). 포함사항: 항공료,숙박(조식포함), Jeep (4인탑승), 중국비자,티벳여행허가서, 사원입장료,영어가이드,보험. 출발일: 매주 목요일(4명 이상 - 최소규모 출발합니다) \*영국,독일,프랑스,한국 연합상품으로 Jeep 이용조건

인도전통 여행사 헤초에서 선보이는 세천년 인도, 네팔 자유여행(28일) ₩1,990,000. 인도 대도시: 델리, 아그라, 자이푸르, 바라나시, 카주리호. 불교 성지: 룸비니, 쿠시나गर, 녹야원. 북인도: 다람살라, 레, 스리나गर, 짐무. 네팔: 카트만두 여행동 다양한 장소, 충분한 여행 스케줄. 일 정: 서울-델리-다람살라-마날리-사후-레-사스폴-카르길-스리나गर-잠무-델리-자이푸르-아그라-카주리호-바라나시-쿠시나गर-룸비니-카트만두-서울. 포함사항: 국제선 항공, 열차, 차량, 숙소(조식포함), 보험, 안내. 불포함사항: 비자비용, 여권발급비, 서울 공항세. 출발일: 7/2, 16, 8/13 (10명이상 출발)

전통의 성지순례전문 헤초에서 선보이는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990,000. 부처님의 4대성지인 댜생지, 상도지, 조전법문지, 일빈지 순례 및 8대성지 순례. \*순례후 카트만두에서 개별적으로 귀국 가능합니다. (아시아항공+네팔항공:1년 항공권). 일 정: 델리-바라나시(녹야원)-부다가야(성도지)-나란다 불교대학-라즈기르(영축산,왕사성,죽림정사)-파트나-바이살리(대립정사,아쇼카 석주)-쿠시나गर(일빈사,다비터)-사헤트 마헤트(사렛성, 기원정사)-룸비니-카트만두-방콕-서울(10일간). 포함사항: 1년 항공권,숙소(조식포함),한국안내원,전용차량. 출발일: 7/2, 16, 목,일(15명이상 출발)